

近代 日本教科書에 나타난 朝鮮¹을 비롯한 外地²의 表象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I. 들어가며

일본은 1872년 학제(學制) 공포를 통해 근대적 교육체제를 제시하였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간 일본은 공교육을 통해 근대국가 시민형성의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도입했던 중국 교육 모델의 노선을 탈피하고 학제 개혁의 모델을 서양국가에서 취하게 되었으며, 서양 교육정보의 활발한 수용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이후 교육과 교과서 제도에 있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일본의 교육현실에 맞추기 위한 시행착오의 성격에서 점차적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 변질되었다. 1880년에 개정된 '제2차 교육령(教育令)'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적 교육을 중앙집권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1847-1889)는 국가주의 교육체제 확립에 힘을 쏟으며 교육행정의 목적을 국가에 귀결시킴과 동시에 국민교육제도의 목적을 '애국심 배양'에 두었던³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근대 일본에 있어 교과서가 일본인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그 학생의 일생을 지배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었다⁴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당시 일본의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와 강경한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청일·러일 전쟁을 고비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심상지리, 특히 조선과 대만 그리고 '지나(支那)에 관한 관념이나 이미지는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지리적 폭력의 확대와 더불어 결정적인

¹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따라 '대한제국'은 '조선'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근대 일본교과서에서도 한국을 '조선'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조선'명칭을 사용하겠다.

² 일본은 식민지 확보과정에서 일본고유의 영토는 '내지(內地)'로 칭하고 이와 대비적으로 한국, 타이완, 가라후토(남사할린), 관동주, 만주 등의 식민지는 '외지(外地)'로 칭하여 운영해왔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당시 교과서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용어들이 식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교과서를 주요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대로 사용하겠다.

³ 가타지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이견상 옮김, 『일본 교육의 역사 -사회사적 시각에서-』, 서울: 논형, 2011, pp.114-115.

⁴ 唐澤富太郎, 『教科書の歴史』, 東京:創文社, 1956, p.2.

선회를 하게 되었다.⁵ 이는 제국주의적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재현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은 단순히 지역개념이 아닌 인식론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서의 ‘지역’으로, 오리엔탈리즘은 반드시 서양과 동양이라는 지리적 구분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양 내부 또는 비 서양권에 있어서 일본과 다른 아시아지역과 같은 중심과 주변이 비대칭적·불평등한 관계성 안에서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다.⁶ 일본의 식민지로서 외지로 일컬어지던 조선, 타이완, 남사할린(가라후토, 樺太), 관동주, 만주 등에 대한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은 박람회, 미디어, 공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현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매체 가운데 교과서에는 어떤 방식으로 외지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지리교과서는 수신, 국어독본, 역사와 함께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교과이다. 이 교과들은 일본의 패전 이후 곧바로 GHQ(연합군 총사령부)에서 교과서를 회수해 갔을 만큼 국가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지리교육의 역할을 국민이 자국을 인식함과 동시에 쇄국에 의해 유입되지 못했던 외국의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통해 자각하게 된 의식이 국민국가형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도록 하는데 있었다.⁷

분석대상은 본격적으로 국가의 통제가 개입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00년 이후의 지리교과서들이다. 소학교의 경우 1903년부터 발행된 국정 지리교과서를 살펴볼 것이고, 중학교의 경우 처음으로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중학교교수요목’이 제정된 1902년부터 발행된 지리교과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⁸

⁵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이산, 1997, pp.119-120.

⁶ 岩木秀樹, ‘オリエンタリズム論議と自他認識’, 『Sociologica 34(1·2)』, 2010, p.53.

⁷ 唐澤富太郎, 앞의 책, p.149.

⁸ 일본은 교육체제와 함께 교과서 정책도 함께 정비해나갔다. 1872년 학제 성립 당시에는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기 보다는 민간 계몽서나 서양 서적의 번역서를 교과서로 삼는 등 교과서 채택 및 사용에 있어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 그러다가 1880년 교과서로서의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교과서로 적합한 목록을 제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며, 1881년에는 사용 교과서를 보고하는 이른바 신고제(届出制)를 취하였다. 1883년에는 문부성에서 제도를 더 강화하여 인가제를 취하도록 했으며, 1886년부터 검정제를 채택하지만 결국 1903년부터 소학교는 국정제로 운영되었다. 중학교는 검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다가 1943년에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국정제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근대시기의 일본의 교과서제도는 근대 일본의 국가통치적 수단으로서 강한 통제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절차는 우선,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를 목차구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당시 조선과 외지가 어떤 순서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시대별 변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시각자료의 형태와 주제별 현황비교를 통해 교과서에서 외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술내용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근대일본 지리교과서에 조선을 비롯한 외지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II. 교과서에 나타난 조선과 외지

(1)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교 교과서는 1903년부터 국정제로 운영되어 왔다. 소학교 지리교과서는 크게 국정 제1기에서 제5기까지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별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 교과서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조선 등 외지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소학교 ‘지리’국정교과서 목차 구성

제1기 (1903년)	제2기 (1910년)	제3기 (1918·1919년)	제4기 (1935·1936년)	제5기 (1943·1944년)
『小學地理 一, 二』	『尋常小學地理 券一, 二』	『尋常小學地理書 券一, 二』	『尋常小學地理書 券一, 二』	『初等科地理 上, 下』
(1) 총론 간토(關東)지방 오우(奧羽)지방 혼슈(本州)중부지방 (2) 긴키(近畿)지방 츄고쿠(中國)지방 시코쿠(四國)지방 규슈(九州)지방 홋카이도(北海道) 타이완(台灣)(3.5) 지구(地球)	(권 1) 대일본제국 간토지방 1 간토지방 2 오우지방 1 오우지방 2 츄부(中部)지방 1 츄부(中部)지방 2 긴키지방 1 긴키지방 2 츄고쿠지방 1 츄고쿠지방 2 (권 2) 시코쿠지방 1 시코쿠지방 2 규슈지방 1 규슈지방 2 타이완지방 1 (2)	(권 1) 대일본제국 간토지방 오우지방 츄부지방 긴키지방 츄고쿠지방 시코쿠지방 (권 2) 규슈지방 타이완지방(4.5) 홋카이도지방 가라후토지방(2) 조선지방(5) 관동주(1) 대일본제국총설 아시아주 유럽주	(권 1) 일본 간토지방 오우지방 츄부지방 긴키지방 츄고쿠지방 시코쿠지방 규슈지방 (권 2) 홋카이도지방 가라후토지방(4) 타이완지방(7.5) 조선지방(8) 관동주(2.5) 남양위임통치지(1) 일본의 총설 아시아주	(상권) 일본의 지도 혼슈·시코쿠·규슈 황성이 있는 간토평야 도쿄에서 고베까지 고베에서 시모노세끼까지 규슈와 섬들 北陸과 山陰 중앙의 고지(高地) 도쿄에서 아오모리까지 홋카이도와 가라후토(1.5) 조선과 관동주(6/1.5) 타이완과 남양군도(5/1.5) (하권) 대동아 쇼난도(昭南島)와 말레이반도 동인도제도 필리핀제도

<p>타이완지방 2 (0.5) 홋카이도지방 1 홋카이도지방 2 가라후토(樺太)지방 (2) <u>조선지방 1(2.5)</u> <u>조선지방 2(1)</u> 관동주(關東州) (2) 세계 1 (지구본) 세계 2 (아시아) 세계 3 (유럽) 세계 4 (아메리카) 제국지리개설</p>	<p>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 세계와 일본 지구의 표면</p>	<p>유럽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 세계와 일본 지구의 표면</p>	<p>인도차이나 서아시아와 중아시아 시베리아 태평양과 제도</p>
---	---	--	---

* 간토(關東): 혼슈 동부지역, 오우(奥羽): 혼슈 동북지역, 추부(中部): 일본열도 정 중앙에 위치한 지역, 긴키(近畿): 교토, 오사카, 고베 등의 지역, 추고쿠(中国): 혼슈 최남단 지역, 가라후토(樺太): 남사할린 지역, 관동주(關東州): 중국 대련(다렌) 및 여순(뤼순) 등의 지역, 남양위임통치지(南洋委任統治地): 태평양 제도, 쇼난도(昭南島): 싱가포르

* ()안의 수치는 페이지 분량을 나타낸 것임

제1기 교과서인 『小學地理』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권은 일본지리⁹를 3권은 세계지리를 다루며 4권에서는 일본지리와 세계지리를 총괄하여 다룬다. 한국은 당시 세계지리에 편제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제2기 국정교과서는 시기적으로 러일전쟁 이후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지리’를 다루는 ‘권1’에서는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 ‘권2’에서는 타이완, 조선, 관동주와 러일전쟁 이후의 식민지를 추가하여 ‘일본지리’에 편제시키고 있다. ‘권2’ 후반부분에는 일본과 관계가 깊은 외국의 지리를 반 페이지씩 가량의 분량으로 약술하고 있다.

제2기 교과서의 ‘일본열도’에 관한 편제는 이후 제3기, 제4기까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 세계지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기존과는 달리 대륙별로 편제하여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제2기 교과서와 다르다. 제5기에 이르러서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봉사하는 목적을 철저히 규명한 교과서로 제4기까지의 지리교과서 내용에서 대폭 전환되었다. 예를 들면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지방지(地方誌)의 장(章) 구성을 폐지하고 ‘황성이 있는 간토평야’, ‘도쿄에서 고베까지’와 같은 제목으로 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서는 ‘권2’에서 다루던 조선,

⁹ 일본지리를 다룬 『小學地理』 1,2권은 처음으로 일본을 8개의 지방으로 구분하고 부현(府縣)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滋賀大学附属図書館, 『近代教科書の歩み-明治期から現代まで-』, 佐賀:サンライズ出版,2006, p.54.)

타이완과 같은 외지 전부를 ‘상권’에 편제하고 있다. 대신에 ‘하권’에서는 ‘대동아’로 시작되는 ‘대동아 공영권’의 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동아’지역의 산업과 자원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일본군의 활약과 ‘성전(聖戰)’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어 외국지리라고는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한국은 제2기 교과서부터 일본지리에 편제되어 등장하게 되는데 타이완, 가라후토, 관동주 등과 같은 레벨로 일본의 지방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서술분량을 살펴보면 조선, 타이완, 가라후토, 관동주, 남양군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면적이나 일본과의 관계성 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별 서술분량의 변화는 제3기, 제4기 교과서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권2’의 경우 제2기 교과서 65페이지에서 제3기 교과서 110페이지, 제4기 교과서 180페이지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¹¹

한편,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 1902년 「중학교교수요목」이 제정되었다. 수신, 국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등의 학과목 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 개념을 학년별로 열거하고 ‘교수상의 주의사항’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지리의 경우 일본지리, 외국지리, 지리학통론으로 구성된 지도와 통계표를 함께 게재한 책자가 사용되었다. 대략적인 지리과목의 교수요목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지리(총론→지방지), 외국지리(아시아,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결론),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1911년 개정까지 지리교육 내용의 원형이 되었다. 1911년 ‘중학교 교수요목 개정’에서는 지리의 경우, 일본지리(제국의 위치→지방지), 세계지리(관동주, 만주, 아시아주→유럽주→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 자연지리 개설, 인문지리 개설로 이루어져 있다.¹² 한국은 일본지리의 지방지에 편제되어 다뤄지고 있다. 이후 이와 같은 구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1937년 ‘중학교 교수요목 개정’에 의해 애국심 양성에 초점을 두는 ‘국가를 위한 지리교육’으로 변용되었다. 1943년 「중등학교령」에 따라 지리는 국민과의 지리로서 내용은 서설, 구미지역의 특성, 일본, 대동아, 국토국세로 구성이 변화되었다.

¹⁰ 滋賀大学附属図書館, 『近代教科書の歩み-明治期から現代まで-』, 佐賀:サンライズ出版, 2006, p.57.

¹¹ 3기 교과서부터 페이지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지리 수업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18년 「중학교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존의 역사·지리 통합 3시간에서 역사, 지리 각각 일주일에 2시간씩 배정되었다.

¹² 近藤裕幸, 『わが国旧制中学校の地理教育成立過程における地理学研究者の役割-地理教科書の分析を通して-』, 早稲田大学博士論文, 2005, pp.19-24.

〈표 2〉 중등학교 '지리' 교과서 목차 구성

『最新中学地理教科書 外国之部上巻』 1902, 山上万次郎著, 大日本図書	『改訂新編日本 地理教科書』1914, 中目覺著、三省堂	『帝国地理』1928, 地理教授同志会編纂、 帝国書院	『新訂改版中等教育 最新日本地理』 1931, 三省堂編輯所, 三省堂	『現勢日本地理』 1941, 石橋五郎著, 富山房
제론(諸論) 아시아 아시아 총론 (지문지리) <u>한국(10)</u> 청국 아시아주 독립국 아시아주 부속국 아시아 총론 (인문지리) 오세아니아 오스트리아 연방 말레이시아 폴리네시아	續諭 위치 및 경계 면적 및 구획 지방지 간토 오우 추부 긴키 추고쿠 시코쿠 규슈 타이완(9.5) 홋카이도 가라후토남부(6) <u>조선(12.5)</u> 총괄 지세 및 근해 기후 및 천산(天産) 생업 및 물산 주민 및 도회 정치 교육신사 및 종교 교통	제론(諸論) 지방지 간토지방 오우지방 혼슈중부지방 긴키지방 추고쿠지방 시코쿠지방 규슈지방 타이완지방(14) 홋카이도지방 가라후토지방(8.5) <u>조선지방(15.5)</u> 관동주(2.5) 위임통치남양군도(2) 총괄 자연지리 인문지리 결론	지방지(地方誌) 간토지방 오우지방 추부지방 긴키지방 추고쿠지방 시고쿠지방 규슈지방 홋카이도 가라후토 (7) 타이완(15.5) <u>조선(15.5)</u> 관동주, 남양군도(1/1) 총설 판도(版圖) 지세 해양 기후·생물 산업 교통 주민 정치	서설(序設) 지방지 가라후토지방(7.5) 홋카이도지방 오우지방 간토지방 추부지방 긴키지방 추고쿠지방 시코쿠지방 규슈지방 타이완지방(16) <u>조선지방(17.5)</u> 관동주(5) 남양군도(4) 종설(綜設) 지세 해양 기후 생물 산업 교통 상업 주민 정치 및 문화 결론

일본의 중등교육용 교과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3년 국정제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정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소학교용 국정교과서와 비교하여 교과서별로 집필자와 출판사의 의도에 따라 교과서 편제나 기술내용의 배열이 비교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지리' 교과서에 있어서, 지방지를 전반부에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이들 내용을 '일본'이라는 관점에서 총괄하여 자연 및 인문지리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교과도 있고, 반대로 총괄적 내용을 전반부에 소개하고 후반부에 각 지방지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조선, 타이완을 비롯한 다른 외지들도 일본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본의 지방지 이후에 배치되어 있다.

서술분량을 살펴보면 조선과 타이완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다뤄지고 가라후토,

관동주, 남양군도의 순서로 할애되어 있다. 소학교보다 학습내용이 심화, 확대되어 조선과 타이완의 경우에는 10-15페이지 가량으로 시각자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시각자료 제시형태

교과서에서 시각자료가 기여하는 역할과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근대의 경우 지금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획득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과서 수록내용이 당대 사회의 전체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시각자료를 포함하는 도상이 미치는 ‘직관’의 원리는 일본에서의 근대 교수법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¹³

교과서에서 외지와 관련하여 사용된 시각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의 대표지역으로 ‘간토(關東)지역’의 시각자료 현황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소학교 국정교과서는 시각자료 사용에 있어 각 시기별로 상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내용별 제시 현황을 보면, 제2기 교과서는 제1기에 비해 지도는 사라지고, 주요도시의 시가지 모습, 중요한 특산물과 산업, 항구·철도·기차역 등의 시설과 관련된 삽화가 증가한다. 제3기부터는 시각자료의 수가 급증하며 시설과 관련된 삽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제4기 교과서에는 지도가 다시 등장하고 띠그래프(각 지역 특산물 생산량 표시)를 사용하여 산업에 관해 상술하며, 사진형태의 삽화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제5기 교과서는 제3기, 제4기 교과서보다 삽화의 사용 횟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제4기까지는 외지를 ‘권2’에서 상당 페이지를 할애하여 다루던 것을 제5기부터는 ‘상권’에 일본과 외지를 모두 편제하게 되면서 분량면에서 기존만큼의 페이지를 할애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 소학교 ‘지리’국정교과서의 시각자료

	지역	서술분량 (페이지)	시각자료 내용									
			지도	그래프	자연	유적	産物	시설	산업	시가지	주민	기타
제1기 (1903)	간토지방	10.5	7		1	2	1					
	타이완	3.5	3				1				1	
제2기 (1910)	간토지방	6.5			1	1	1	3	1	1		
	타이완	2.5							2	1	1	
	가라후토	2					1	1	1	1	1	1
	조선	3.5			1		1	1	1	1		
	관동주 부 만주	2			1		1	1				
제3기 (1918/ 1919)	간토지방	8.5		1	1	1	1	7		1		
	타이완	4.5			1			3	1	1	1	
	가라후토	2.5					1		1			

¹³ 今井康雄, ‘教育における伝達とは何か’, 『教育哲学研究』 97, pp.124-148.

	조선	5			1			3		2		
	관동주	1					2					
제4기 (1935/ 1936)	간토지방	10	2	3	2	1	1	9		1		
	가라후토	4	2				1	1	2	2		1
	타이완	7.5	4		1		1	4	3	1		
	조선	8	1	1	3		3	5	2	1		
	관동주	2.5			1			2	1	1		
	남양군도	1							1		1	
제5기 (1943/ 1944)	간토지방	12.5	2		2	3		3	1			
	가라후토	1.5						1	2			
	조선	6			1	1	1	1				
	관동주	1.5								1		
	타이완	5			1	2	2		1	1	1	
	남양군도	1.5	1								1	

* 기타: 가라후토 관련 부분의 '기타'항목의 내용은 '러일 국경과 경계표'를 나타낸 삽화이다.

시각자료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시설, 산업관련 자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의 대표 사례로 살펴본 '간토지방'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당시 국토국세에 관한 정보 습득이 지리교육의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지에 관해 나타나는 시각자료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선, '주민'에 관한 항목이다. 일본인과 다른 민족과 풍습(주거와 복장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사례는 없고, 타이완·남양군도와 같이 원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들의 주요 거주지역과 풍속에 관한 자료들이 게재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에 관해서는 주로 1차 산업에 관한 시각자료가 기본을 이루고 점차적으로 공업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변화를 보인다. 예컨대 가라후토는 풍부한 목재, 조선은 인삼, 타이완은 사탕수수과 바나나 재배에 관한 삽화가 게재되다가 제3, 제4기 교과서부터 가라후토는 펄프공장, 조선은 제재소, 타이완은 제당공장과 같은 삽화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표 4〉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시각자료

	지역	서술분량 (페이지)	시각자료 내용										
			지도	그래프	자연	유적	産物	시설	산업	시가지	주민	문화	기타
1902	간토지방	15	5	1	3	4	1						
	타이완	12	4		1	1	1	1			2		
	조선	10	5			1					1		
1914	간토지방	23	3	3	7	4	1	8		2			
	타이완	9.5	2	3	1	1		1	1	1	1		1

	가라후토	6	1		1			1	1		1		3
	조선	12.	2	3	1	1		3			1	2	1
1928	간토지방	22	2	18	12	3	5	7		2			
	타이완	14	1	3	3	1	5	2	1	2	2		1
	가라후토	8.5			1			4	2	2			2
	조선	15.5	1	4	2	3	2	6	1	1	1		
	관동주	2.5						1	1		1		
	남양군도	2									1	2	
1931	간토지방	27	22	4	5	2	1	8	3	4			
	가라후토	7	1	2	2				2	2	2		2
	타이완	15.5	7	3	5	1	7	1	4	1	1		2
	조선	14.5	7	2	3	1	2	4	2	2	1	3	
	관동주	1						1					
	남양군도	1									1		
1941	간토지방	23.5	20	13	5	8	6	10	3	1		1	
	가라후토	7.5	12	3	2				3				
	타이완	16	10	5	4	2	6	7	5	4			3
	조선	17.5	13	8	4		3	6	8		1	2	1
	관동주	5	3	2	1	2	3	3					
	남양군도	4	2	6	3		2	1	1	1			2

중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소학교에 비해 서술분량이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각 자료의 사용빈도와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또한, 소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삽화보다 훨씬 정밀하며 사진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소학교 교과서의 삽화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유형적 특징을 보면, 지도와 그래프의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중학교 교과서는 편제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하위항목으로 농업(목축 포함), 수산업, 임업, 광업, 상업(무역 포함), 교통·통신 등을 설정하고 있다. 지방지 부분에서도 산업현황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동시에 지도와 그래프를 이용하고 있다.

시각자료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소학교 교과서와 유사하게 시설, 산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산물에 대한 삽화도 자주 등장한다. 한편, 일본 신사나 총독부, 교실의 모습 등과 같이 외지를 통치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설도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관동주의 '여순(뤼순)'은 청일·러일전쟁과 관련이 있었던 만큼 전쟁 유적지로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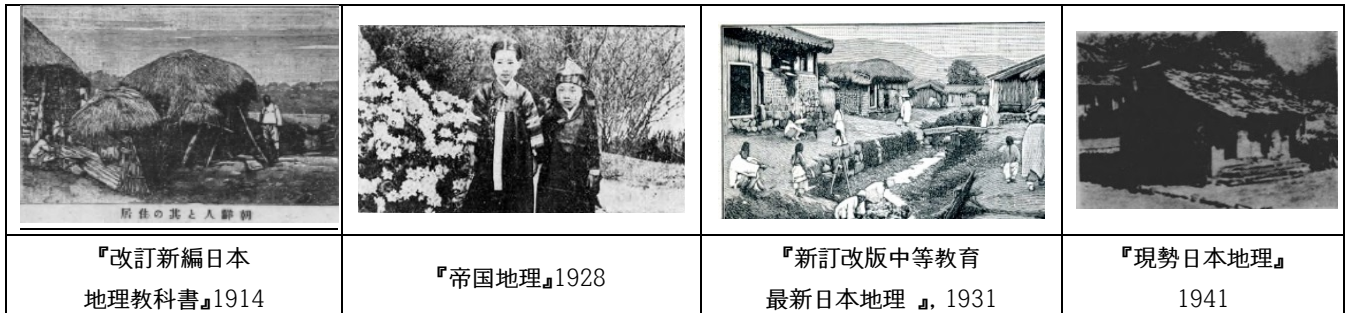
주민, 문화와 관련해서는 소학교 교과서보다 많은 삽화가 등장하는데 역시 원주민들의 독특한 차림새와 장식, 주거형태 등이 부각되며 마치 박람회의 외국관 전시물을 연상하는 듯 하다. 이러한 삽화는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교과서에 게재된다.

〈그림1〉 원주민과 주거의 모습



한국에 관해서도 주민과 주거모습들이 제시되는데 시대 및 교과서 별 제시 자료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렇다고 시기가 뒤로 갈수록 개선된 자료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 삽화의 내용은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림2〉 한국인과 거주



한편, 제시되는 시각자료의 주제별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10년대 교과서까지는 ‘자연·유적’ 대비 ‘산업·시설’ 관련 삽화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지만 1920년대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산업·시설’ 관련 삽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간토 지역 수치와 비교하면 외지의 경우 확연히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지를 다룰 때 점차적으로 경제적 활용가치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학교에서의 제시양상과 유사하게 시기별로 산업, 교통, 시설의 변화모습이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 일본 통치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산업화(물론 자원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면서 주민의 생활모습과 관련된 자료는 그다지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3) 서술내용의 특징

소학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위치, 지형, 기후, 주민, 산업, 교통, 도읍을 소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제3기부터는 그 내용이 보다 상세해지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이지가 증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식민지배와 조사에 따른 정보가 축적되고 식민지 경영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을 수록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지가 일본의 자원보급을 위한 중요지역이었던 만큼 각 지역의 특산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었다. 특히 1차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을 공업화를 통해 가공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공장 시설에 관한 언급이 제3기 교과서부터는 자주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산품들이 어떤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이출(移出), 적출(積出)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소학교 지리내용은 기본적으로 외지를 물자수탈의 도구로 여기고 地勢, 水勢, 山勢 등에 관한 설명도 산업과 일본으로의 移出을 위한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초점이 두어져 있다.

조선지방은 한서가 강하고 겨울에는 하천이 결빙하는 곳도 있다. 이 지방은 고래부터 수목의 보호가 없으며 삼림은 압록강·두만강 유역 외에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평야에는 농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들에는 목축이 행해진다. (중략) 농업은 조선 제1의 산업으로 쌀·대두·보리의 경작이 주를 이루며 쌀은 부산·군산에서, 대두는 부산에서 積出되는 양이 적지 않다. (제3기 교과서 내용 발췌/ 海後宗臣 等編,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16卷 地理(二)』, 日本: 講談社, p.463)

주요한 광산물은 금, 철, 석탄이다. 금은 운산, 대유동 등 평안북도가 주산지이며, 철광은 재령, 은율, 하성, 이원 등의 각지에서 채굴된다. 철광은 검이포에서 제련되지만, 八幡(야하타세이)제철소¹⁴로 운송되는 것도 많다. (제4기 교과서 내용 발췌/ 海後宗臣 等編,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16卷 地理(二)』, 日本: 講談社, p.536)

제5기 교과서에는 노골적으로 각 지역이 국방, 교통, 경제면에서 중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일본의 식민정책의 혜택으로 예전과는 달리 활기를 띠고 있다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원문: 조선반도)는 그 배후에 연결되는 대륙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일본(원문: 우리나라)과 대륙을 잇는 반도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 공업이 발달하고 도로도 모두 개선되어가고 있어 반도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활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5기 교과서 내용 발췌/ 海後宗臣 等編,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17卷 地理(三)』, 日本: 講談社, p.46)

중학교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개괄(연혁, 위치, 일본과의 관계, 지정학적 중요도),

¹⁴ 후쿠오카현(福岡縣) 기타큐슈(北九州)에 있는 제철소

기후, 지형, 주민, 정치, 산업, 교통, 지방지를 소주제로 서술하고 있다. 연혁에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사건과 시기를 설명한다.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산업에 관해 상술하고 있으며 地方誌에서도 산업에 관한 내용이 역시 주가 되고 있다.

1902년 『最新中学地理教科書 外国之部 上巻』에는 한국이 외국지리에 편제되어 있고 다루는 내용도 산업에 치중되기 보다는 한국에 대한 인상 및 특징에 관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 평가 일색이다. 가령, ‘서울의 거리는 불규칙적으로 좁고 불결하다.’(p.17), ‘교육은 구시대 상태에 만족하여 진보되지 않았으며…’(p.21), ‘지방관은 뇌물을 받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p.22)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 국방, 교통 관련해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언급은 이후 교과서에도 ‘문화의 정도가 낮다’, ‘한국인은 나태하고 안일하다.’와 같은 유사 서술로 계속 등장한다. 이는 유독 한국관련 서술에서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외적으로 타이완 원주민에 관해 ‘문명 정도가 낮다, 흉포하다’와 같은 서술사례가 있지만 타 외지 주민들의 성향 및 문화수준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산업·시설·교통·통신 관련서술은 변화상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교통’을 예로 들면, ‘철도는 대부분 남부, 서부를 통하고 주요한 것은 경부선·경의선으로 안봉선(安奉線)에 연결되며 마산선·호남선·경인선·검이포선·진남포선 등의 짧은 지선이 있다.’(1914), ‘도로는 미 개설된 곳이 많지만 철도는 이미 광궤(廣軌)로 발달이 두드러진다. 경부·경의선은 相連으로 縱貫線을 이루고 압록강의 회전개폐식대철교에 의해 안봉선에 연결되어 유럽에 이른다.’(1928), ‘경성부를 중심으로 도로는 모든 방면에 통하지만 불완전하므로 개량하고 있다.’(1941) 와 같이 서술내용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산업과 관련해서도 각지의 원료를 가공한 새로운 형태의 공업이 추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국은 일본이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행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1941년 『現勢日本地理』는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기적으로 전시체제의 교과서로 변모되어 국토국세의 대요를 학습하여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중요한 목표였던 만큼 서술내용도 이전 교과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각의 도입 부분에서 한국은 ‘내지와 대륙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p.179) 에 있다고 강조하고, 타이완은 ‘産物이 풍부하여 일본 남방의 寶庫라 불린다.’(p.165), 관동주는 ‘(면적은 작지만) 위치가 좋으며 특히 만주국의 문호로 매우 중요하다.’(p.196), 남양군도는 ‘교통상·군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최근 점차 평가가 상승하고 있다.’(p.200) 와 같이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예전과 달리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정치의 수혜를 전파하기 위한 서술들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병합이래 하천을 보수하여 홍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관개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등 농사개량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경지와 농작물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現勢日本地理』, 1941, p.182)

시각자료의 제시현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서술내용에 있어서도 외지를 경제수탈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기가 뒤로 갈수록 변화내용이 상세하게 추가된다. 반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독특한 문화, 민족의 특징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본인과는 문화수준이 다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III. 나오며

근대 일본 지리교과서에 다뤄지는 외지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운영의 일차적 목표가 경제적 이익 추구였던 만큼 외지가 경제적 수탈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났다. 각 지역의 자연지리, 인문지리 요소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당시 지리교육이 목표로 하고 있던 ‘국토국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장치로 지형, 기후, 山系·水系의 설명이 자원의 분포와 산업화 및 수탈을 위한 입지 조건과 연계되는 서술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드러나지 않은 채 오히려 식민지 경영의 혜택으로 외지마다의 기존 폐습이 점차 사라지고 근대적으로 사회가 변모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타이완, 남양군도, 가라후토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모습과 미개한 습성만을 언급하거나 시각자료로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에 관해서도 민족성과 사회상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자료의 제시나 서술내용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아도 전자에 관한 내용은 당시의 변화모습이 충실히 반영되어 외지를 일본의 경제적 결점을 보완하는 존재로서 인식시키고 있는 반면, 후자에 관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과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일본적 오리엔탈리즘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재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